

2023. 9. 1.(금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9월 1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소방재난본부 구조대책팀

구조대책팀장	이 낙 규	02-3706-1420
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

담 당 자	오 창 훈	02-3706-1421
	주 원 철	02-3706-1425

사진있음 ■ 매수 : 3매

### 8월 말까지 폭염 관련 응급질환의심 환자 158명 발생·작년보다 3배 이상 많아

- 폭염현장 긴급구조·구급대책 관련 온열질환의심환자 114명 이송
- (환자유형별) '열탈진', (연령별) '60대 이상', (월별) '8월'이 가장 많은 비중
- 폭염 특보 시 불필요한 바깥 활동은 줄이고 취약 시간대의 작업은 피하여 줄 것

-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긴급구조·구급대책의 중간 실적을 1일(금) 발표하였다.
-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출동 후 복귀하는 구급대를 통해 긴급구조·구급대책이 시행된 5월 15일부터 8월 말 현재까지 4,632건의 순찰을 실시하였고 폭염경보 시 소방펌프차 등을 동원하여 3,493회에 걸쳐 취약지역 현장 확인을 실시했다.
- 이를 통해 8월 말까지 발생한 총 158명의 온열질환의심 환자 중 114명은 119구급대로 응급 이송하였으며 44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하였다. 해당 온열질환의심 환자의 발생 현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.

- 온열질환의심 환자의 유형별 현황은 열탈진이 104명(65.8%)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열사병 24명, 열실신 15명, 열경련 14명 등의 순이었다.

표1) 서울시, 2022~2023년 온열질환의심 환자 발생 현황(8월 말 기준)

(단위 : 명)

구 분	합계	열탈진	열사병	열실신	열경련	기 타
2023년	158	104	24	15	14	1
2022년	50	34	7	5	4	-

출처 : 서울소방재난본부

- 열탈진: 땀을 많이 흘리거나 전해질 공급 부족으로 탈수와 전해질 이상 발생
  - 열사병: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의 장애로 발생
  - 열실신: 열 스트레스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더운 환경에 노출 시 발생하는 기립성 실신
  - 열경련: 과도한 신체 활동 등으로 발한과 염분 소실로 복부, 다리 등에서 갑작스런 통증을 동반한 불수의적인 근육 경련
-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90명으로 총 발생환자의 57퍼센트를 차지했다. 월별 발생 현황은 8월이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7월 48명, 6월 13명 순이었다.
  -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“올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으로 예년에 비해 온열질환의심 환자가 대폭 늘었다”며 “향후에도 폭염 특보가 발령될 경우 불필요한 바깥 활동은 줄이고 야외 근로자의 경우 폭염 취약 시간대의 작업은 피하여 줄 것”을 당부했다.
  - 아울러 소방재난본부는 폭염경보 발령 시 취약지역인 12개 쪽방촌에 총 86회에 걸쳐 93톤의 물을 살수하여 무더위를 식혔다.

-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“계속되는 폭염 상황에서 안전에 더욱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”며 “서울소방은 신속한 소방력 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